

제약기업, 글로벌 신약개발 “군침”

시장규모 국내의 100배 웃돌아 ... SK케미칼-LG화학 이어 동아제약

국내 제약기업들이 글로벌 신약 개발을 목표로 해외 임상시험에 잇따라 나서고 있다.

동아제약이 12월초 국내판매를 앞둔 발기부전 치료제 신약 <자이데나>에 대해 미국 현지에서 별도의 임상 시험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임상시험은 미국을 비롯한 세계시장 진출을 염두에 둔 것으로 현재 미국 전역 15개 임상센터에서 발기 부전 환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동아제약은 2009년께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신약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1999년 SK케미칼의 항암제 신약 선폴라 이후 연이어 신약을 출시했지만 효능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아 거의 국내공급에만 머물러 왔고 매출도 적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2003년 LG생명과학의 항생제 팩티브가 FDA의 신약승인을 받는 등 신약 개발기술이 진전되면서 글로벌 신약개발이 탄력을 받고 있다.

동아제약, LG생명과학, 동화약품, SK케미칼 등은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 현지 임상시험을 통해 신약의 효능을 인정받아 국내시장의 100배에 달하는 해외시장 공략에 나설 방침이다.

LG생명과학은 팩티브에 이어 현재 미국과 유럽에서 세계 최초의 서방형 인간성장호르몬제 <SR-hGH>의 임상3단계 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화학저널 2005/09/13>